

## UPASIKA PRAISED CONTENTS

- 02 발행인 칼럼 | 이기향  
새 얼굴을 만들어가는 불사, 아름다운 불교여성광장
- 04 불교와 여성 | 김원숙  
'가족 드라마' \_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사유
- 06 가고 싶은 절, 만나고 싶은 스님 | 이영희  
저스트비 흥대선원 준한스님을 찾아서
- 09 108인 기획 인터뷰 | 전영숙  
낮에는 소아외과 밤에는 산사의 보살님, 박귀원 선생님
- 12 현장스케치 | 윤효진  
영108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 16 특별활동보고1/2 | 남동현/정대련  
15회바자회를 마치며  
제18회 샤카디타 세계대회 참가기
- 20 건강한 먹거리 이야기 | 최혜경  
연근 브로컬리 샐러드, 오이 물김치
- 22 사무국 소식
- 25 산하기관 센터 소식
- 29 회원 동정
- 30 재정동참 현황

## 우바이예찬

2023년 86호

[발행인] 이기향 [발행일] 2023년 7월 15일

[편집위원장] 형난옥

[편집위원] 김영희, 김원숙, 이영희, 조정숙

[편집디자인] 랄랄라스튜디오

[발행처] 불교여성개발원·(사)지혜로운여성

(03047)서울시 중로구 자하문로 30길 20 1층

[전화] (02) 722-2101~2

[팩스] (0502) 722-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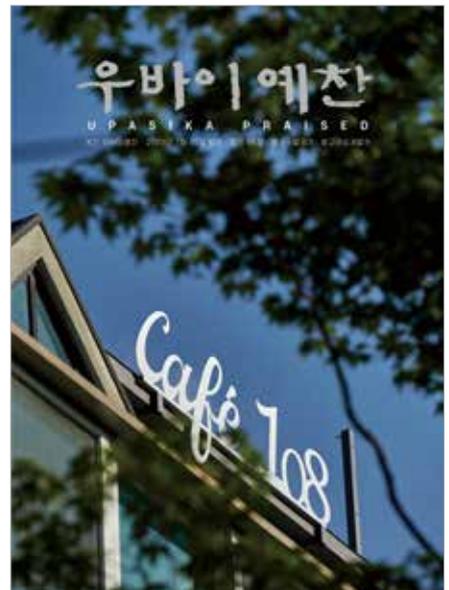
[불교여성개발원 홈페이지] www.bwdi.or.kr

[지혜로운여성 홈페이지] www.wisdom2007.or.kr

[이메일] wisdom2007@daum.net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501-04-193757 불교여성개발원

※우바이는 여성 재가불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표지 사진]

불교여성개발원 사옥 4층에 위치한 카페 108 전경

[사진작가/최배문]

전)불광미디어 전임사진가

전)RAY 스튜디오 대표

경민대 미디어사진과 졸업

낯선 대상을 '낯설지 않게' 보여주기 위해 머리와 감각이 아닌 발로 뛰고 가슴으로 품어내는 사진을 추구하고 있다.



## 새 얼굴을 만들어가는 불사, 아름다운 불교여성광장

취임 이후 동분서주하다 보니 어느새 한여름입니다. 회원여러분께서 힘 모아 관리해 주신 덕분에 청운동에 터를 잡은 개발원이 점점 반듯한 모양을 갖춰가고 있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방문객들의 호의에 찬 눈길을 접할 때마다 힘들었던 마음은 곧 안도의 한숨으로 바뀌지만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머물고 싶어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의 완성은 과연 언제나 가능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떠나지 않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최대한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기 위한 운영진의 노력은 어느새 저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겉모습에서만 아니라 구성원들의 내적인 힘이 함께 숨쉬는 불성 충만한 공간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원장소임을 맡기 전부터 제게 주어졌던 '여성광장 건립의 완성'은 소임을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붓다들의 건강한 영혼이 함께 숨쉬는 공간을 만들어야겠다는 열망으로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저 스스로 명상리더십센터 <차와 선>강의를 수강하며 체득해가고 있는 것은 불교여성개발원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공간을 가꾸는 일이 제 자신의 본질을 찾아가는 일과 다름이 없음을 알아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 어머니의 마음으로 준비하는 따뜻한 인재 불사

미래 불교를 위한 개발원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젊은 불자를 발굴하고 키워나가는 일입니다. 개발원의 주요 조직인 영 108은 2010년 만들어져 활발히 활동해왔으나 안타깝게도 2015년 이후 그들의 결혼과 육아, 코로나 19사태 등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사무국은 영 108과의 협업으로 지난 6월 중순 육지장사 가족 템플스테이를 함께 기획,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영 108 회원 11명, 자녀 2~8세까지의 어린이 10명이 참여하여 가장 많은 최연소자와 펼치는 신개념의 템플스테이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또한 손주 세대 영 108을 키워가는 인재 불사의 서막을 열게 된 것입니다. 8월 초~9월 중순으로 계획하고 있는 제2차 가족 템플스테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레크리에이션 전문가, 동화구연 지도사 등 전문인력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역량이 있는 개발원 가족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 108 여성불자들의 빛나는 활약상은 개발원의 진면목

우리나라 재가여성단체를 대표하는 불교여성개발원은 구성원의 역량과 업적이 상당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제 18회 샤카디타 대회(6. 23-27)에서 충분히 주목받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원이 배출한 여성불자

108인들의 괄목할만한 활동은 모두 국내외적으로 한국 재가 여성불교의 현주소를 선두에서 알리는 빛나고 자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샤카디타 조은수 공동대표는 31개국에서 온 2,900여 명의 참가자들을 총지휘하였고, 황수경 교수의 「대행선사의 가르침과 깨달음」에 관한 논문발표, 정대련 교수의 「불교여성개발원의 조직과 역할」을 소개하는 워크숍, 이선옥 교수의 쥬스 댄스 연출과 공연 그리고 김인숙 전 원장님의 발원으로 이루어진 텐진 바모 스님과의 귀한 만남 등은 108 여성불자로서 자긍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에 등록된 개발원 회원 60여 명도 행사에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국제화의 중요성을 체득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개발원 가족들도 범종단적으로 교류하는 열린 안목을 갖춰나가야 할 것입니다.

### 2023년은 불교여성개발원의 새 이미지 구축의 원년

불교여성개발원은 수송동시대를 접고 청운동시대를 힘차게 열었습니다. 불교적 소통이 빈번한 수송동 일대를 떠나 조용한 곳에 터를 잡은 것이 자발적 선택이었던만큼 청운동에서의 불교여성개발원은 이미지를 통합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이미지메이킹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디자인 면에서는 기존의 심볼과 로고를 적극 활용하고 개발원의 모든 사업을 홍보의 관점에서 바라보기를 제안합니다. 그 첫 시도로 지난봄에는 7만여 명의 관객을 동원한 2023 세계 불교박람회(3.30~4.2)에 참가하여 개발원을 알리고 재정 자립을 모색하는 전기를 가졌습니다. 또한 청운동 사옥에서 개최한 제15회 나눔 바자(6.2~3)는 이전 첫해인만큼 천여 명의 기존 회원과 지역주민들에게 개발원의 존재를 알리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1층 사무공간을 제외한 사옥 전체를 층을 고려한 동선에 따라 스넥코너, 불거리, 입울거리, 먹거리와 체험 및 휴식 상품으로 분류하고 백화점식으로 배치하여 예년에 비해 짜임새 있는 운영을 도모하였습니다. 특히 먹거리는 108인회 회원이 개발한 맛간장, 천연식초, 각종 청(淸)류, 장(醬)류가 완판되는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앞으로 개발원의 CI, BI를 적극 활용하여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여 2024년 국제불교박람회 등에도 출품을 구상중입니다.

저는 2023년에 활짝 열어젖힌 청운동시대가 개발원의 이미지를 새롭게 구축해나가는 원년이 되기를 발원합니다. 회원 여러분께서는 개발원의 사명과 비전을 숙지하시고 스스로 불교여성개발원의 알리미가 되겠다는 원을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을 108여성불자들과 함께 개발원의 새 얼굴을 만들어가는 불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면 日日是好日(일일시호일)이며 점입가경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소서! 🙏

## ‘가족 드라마’ \_ 아름다운 관계에 대한 사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일, 기술 및 소셜 미디어의 요구에 압도당한다. 때때로 우리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잃어버리고 낯선 사람들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느낌을 받는다. 점점 더 고립되고 단절되는 사회에서 가족의 가치와 유대감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있는 한강뮤지엄의 2023년 하반기 기획전 『가족 드라마』展을 소개한다. 『가족 드라마』展은 현대 사회에서 가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며, 다양한 시각 매체의 작업을 통해 변화하는 가족 풍경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가치에 대해 발언한다. 또 가족 간의 유대감으로부터 인간 모두가 공유하는 근본적 연결성에 이르기까지 가족 관계의 다면적 측면을 모색한다.



그림1 정두희, 한국 가족초상, 미국 가족초상, 비단에 채색, 2022

이번 전시에서는 가족 관계의 복잡함과 풍부한 뉘앙스를 각자의 방식으로 탐구해 온 다섯 명의 여성 작가, 정두희, 이은숙, 이의연, 만옥, 김한울의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았다. 그들은 다양한 매체와 기법을 사용하여 가족의 풍부한 감정적 풍경을 포착하고 친밀한 유대감의 기쁨, 고통 및 복잡성을 조명한다.

먼저 한강뮤지엄 1층에서 만나는 정두희의 “가족 지도, 가족 초상화”은 가족, 문화적 차이, 가족 역학에 대한 지리적 영향을 주제로 탐구한다.

“가족 지도”는 가족에 대한 관심과 문화적 차이의 수용 가능성을 그리고 있으며, “가족 초상화”는 빛과 그림자의 상호 작용을 통해 가족 관계의 본질을 강조한다. 작가의 전통적인 수묵화 기법의 능숙한 사용과 가족 초상화에 반려동물의 통합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가족을 정의하는 포용성과 수용성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이은숙의 “실과 빛” 설치작업은 가족 관계의 보이지 않는 측면에 대한 생각을 자극하는 탐구를 제공한다. 공간에 매달린 섬세하게 상호 연결된 실은 가족 관계의 역동적인 특성을 상징한다. 이 전시에서 작가는 방문객들이 가족 연대의 중요성과 인간 감정의 깊이를 강조하면서 친밀한 가족 관계의 감정적 세계를 탐구하도록 초대한다. 이은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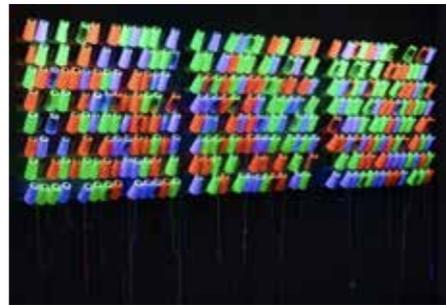


그림2 이은숙, Installation : 4m\* .2m\* 1.5m, 2015



그림3 만옥, 얽힌 행복, 116.8 x 91.0 cm, acrylic on linen, 2022

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로 묶는 보이지 않는 실에 대해 성찰하게 한다.

2층에서 전시되고 있는 만옥의 작품은 가족의 전통적인 경계에 도전하고 인간, 동물 및 사물 사이의 복잡한 역학을 탐색한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작가는 모든 존재의 투명성, 정직성 및 상호 연결성을 강조하여 이러한 생물의 본질을 포착한다. 만옥은 위계 구조와 전통적인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간이 아닌 종과의 보다 균형 있고 평등한 관계를 옹호한다. 이 전시는 관람자로 하여금

자연 세계와의 관계를 재고하도록 유도하고 보다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공존을 장려한다. 만옥의 예술은 인간으로서의 책임을 반성하고 더 연결된 세상을 위해 노력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그림4 이의연,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 100x100cm, 손지에 채색, 2022

2층 공간에서는 함께 이의연 -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은 아름다웠다.”을 만날 수 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이의연의 작품은 가족 간의 인연과 유대를 중심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전한다. 작가의 작업은 편안함과 친근함을

불러일으키며 보는 이로 하여금

가족의 추억과 연결되도록 초대한다. 전시회는 가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인정하고 가족 관계에서 발견되는 회복력을 강조하면서 가족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위로와 지원을 탐구한다. 이의연의 작업은 직계 가족 관계를 넘어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근본적인 연결과 감정을 강조한다.



그림5 김한울, 꿈결, 91x116.8cm, 캔버스에 아크릴 채색, 2022

마지막으로 3층 전시장에 전시된 김한울의 “기쁨의 속삭임: 일상의 마법 테피스트리”은 작가의 일상과 개인적인 경험을 엿볼 수 있으며 작은 기쁨과 연결의 순간을 기념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방문자가 삶의 미묘함과 우리를 둘러싼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권장한다. 황홀한 일상의 테피스트리를 통해 김한울은 기쁨, 경이, 연결의 서사를 엮어 우리 자신의 경험 속에 있는 심오한 아름다움을 일깨워주고 있다.

한강뮤지엄의 『가족 드라마』展을 통해, 작가들이 포착한 이미지와 이야기가 담긴 가족의 초상 앞에서 ‘가족’, ‘사랑’, ‘관계’라는 영원하고 보편적인 주제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발견하기를 기대한다. 우리 삶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생각하고, 가족의 연결감을 구성하는 사랑, 지지 그리고 함께 하는 순간을 마주할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 저스트비 흥대선원 준한스님을 찾아서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개성 충만한 MZ세대 젊은이들을 자발적으로 모이게 하고 함께 스태프로 동참하여 살게 하는 것일까?

흥대선원과 준한스님의 인터뷰가 전격 결정되었다. 흥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만 해도 200여 곳이 넘는다는데 그중에서도 핫 플레이스로 소문난 이곳은 송산스님의 손상좌이자 현각스님의 제자 준한스님이 도반 스님과 청년 스태프들과 함께 운영하는 덕숭총림 수덕사 소속의 서울포교당 '흥대선원'이다. 영문 寺名은 '저스트비 템플(Just Be Temple)'이다. 홍보 플랫폼은 단지 숙박 공유 사이트인 에어비앤비(Airbnb)와 인스타그램 단 두 곳뿐이지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다녀간 게스트만 해도 벌써 200명이 넘는다 한다.



일단 '저스트비 흥대선원'은 불교문화사업단 소속의 템플스테이 사찰이 아니다. 그래서 다른 템플스테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곳은 청년들이 주인이에요. 스님들은 전면에 나서지 않고 서포트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스트비라는 브랜드는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게스트하우스와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윤을 만들어내는 주식회사 영리법인이고, 흥대선원은 스님들이 명상과 예불을 하며 비영리로 운영하는 구조예요. 그리고 사찰의식을 최소화해서 사시예불은 없고 새벽 예불이 있는데 사홍서원과 108배, 명상의 순서로 게스트들이 자유롭게 참석하고 있습니다."

"청년 포교는 청년이 주인공이 되어 주도를 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친구가 친구에게 같이 하자고 하는거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들끓처럼 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님은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외호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2월 3일 저스트비에서 열린 제1회 '채식 포틀럭 파티(Veggie Potluck Party)'에는 다양한 국적과 종교, 나이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 준비해 온 음식에 이름표를 달고 'Gimbab/Korea(김밥/한국)', 'Okonomiyaki/Japan(오코노미야키/일본)', 'Tortillas/Mexico(토르띠야/멕시코)', 'Quiche/France(키슈/프랑스)' 전 세계 음식들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저스트비에는 이처럼 창의적인 프로그램들이 많다.

이런 발상의 전환과 율장의 개차법처럼 유연한 운영방식을 생각해낸 준한스님이 궁금해졌다. 준한스님은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와 외할머니 모두 불자였다. 특히 할머니가 일본에서 입정교성회(릿쇼 코세이카이)라는 재가불교 종파의 독실한 불자여서 스님은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불교를 생활화할 수 있었다. "제가 생각하는 불교는 노

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2년마다 세계청소년불교대회 같은 거하고, 방학에는 일본으로 교환학생으로 가고, 또 우리집으로 일본 교환학생이 놀러 오고, 항상 재밌었던거 같아요." "저는 어려서부터 불교는 되게 재밌더라고 인식했고 그렇게 다가가니까 어떤 계기가 됐을 때, 불교를 찾게 되더라고요."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고등학교를 거쳐 학생회장도 맡고 장학금도 받으며 대학 생활을 하면서도 불교와의 인연은 이어져 송산 큰스님께서 보스턴 캠브릿지에 처음 설립한 관음선종의 본사 '프로비던스 쟈센터'를 방문하여 수행공동체, 커뮤니티하우스에 대한 첫 영감을 받았다. 그러다 대학 이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서 생사문제에 딱 걸리면서 휴학계 내고 2000년에 송산스님이 계신 화계사 국제선원에 와서 스님들과 하안거를 하면서 다시 불연이 이어졌다. 그때 송산 큰스님의 '선의 나침반'을 읽게 되면서 크게 발심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후에 은사가 될 현각스님도 처음 만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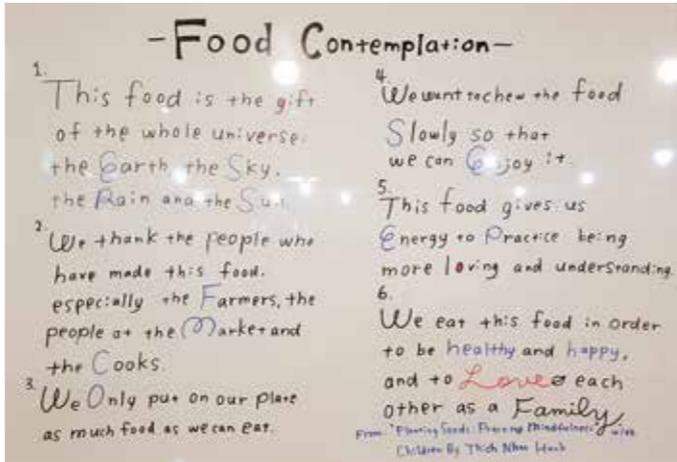
영어로 사홍서원을 하고, 송산스님의 찬팅북(chanting book)을 읽고, 108배와 명상을 이어갔다. 스님은 출가하기 전 이미 대학생 때부터 국적을 초월하여 생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 채식하고 명상하며 수행을 같이하는 세계채식부페와 명상센터를 겸한 게스트하우스를 구상했다고 한다. 대학 창업클래스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1등상을 받으며 투자금도 받고 부지 선정까지 한창 사업개발을 하던 중 2005년에 현각스님의 <살아있는 금강경> 법문 영상 번역을 의뢰받았다. 『금강경』을 처음 읽으며 '지금은 사업보다 내 공부가 먼저다'라는 깨달음이 왔고 지혜와 힘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출가라고 생각해 번역일이 끝나자마자 사업은 친구들에게 넘기고 귀국해 2006년 1월에 전격 출가했다.

양백정사 봉철스님이 맡긴 주지 소임을 살며 두문불출 천일기도를 하던 중, 회향을 한 100일 정도 남겨났을 때, 시점이 절묘하게도 가까운 신도 분이 흥대에 건물이 있는데, 전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게스트하우스였는데 코로나로 버티고 버티다 나가게 됐는데 스님한테 기도 좀 해달라는 것이었다. "제가 주소를 한번 보자고 했더니 외국 청년과 한국 청년들이 제일 좋아하는 흥대인데다 방이 137개짜리 게스트하우스였습니다."

이렇게 일본 재가불교였다가 미국 유학을 하면서 송산큰스님 알게 됐고 다시 우리나라에 돌아와 선 불교 스님으로 19년을 살고 나서 세상에 나와 초발심 적부터 품었던 명상게스트하우스를 시작한 것이다.

"저는 수행 역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게임을 시작하면 각 스테이지로 가게 돼 있는데 게임을 계속 하는 이유는 분명히 다음 스테이지로 갈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게임을 시작하는 겁니다. 각 스테이지에 있는 난관을 깰 때마다 성취감이 있으니까 아이들이 게임에 빠져드는 겁니다. 마음수행도 똑같습

니다. 넘어지고 안될 때도 있지만 저는 항상일로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스테이지, 다음 스테이지 다 깰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게임하듯이 하는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도 마음 가지고 하는 보람있고 재밌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명상게스트하우스를 수행놀이터라고 합니다.”



우리 선불교 전통을 좀 더 살려, 선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수행이라 수행과 수행 아닌 것을 구별하지 않거든요. 이걸 수행이고 저건 수행이 아니

다 하면 벌써 이분법에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일상생활이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춤, 그림, 요가, 온갖 것을 다 활용해서 한 생각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이걸 수행으로 삼으면 됩니다.

“출가자를 만드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여기 온 젊은이들을 평생의 수행자로 만드는 것은 제 목표입니다. 출가할 사람은 출가하고 사회에서 역할을 하는 사람은 하는 건데, 청년들을 밀어주는 역할을 스님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심했을 때 이십대들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저도 20대 때 발심했기 때문에 그때 정말 열심히 포교를 했어요. 포교라는 생각보다 내가 좋으니 같이 해야겠다고 친구들에게 적극 권했던거죠. 이렇게 이십대 친구들을 발심시켜서 이 친구들을 뒤에서 밀어주면 저절로 포교가 됩니다.”

“요즘은 케이 붙이는데 유행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한류는 있다. 실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항상 제가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수행입니다. 수행을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내려고요. 여행이 제일 좋은 수행이고 여행도 우리나라는 산과 바다, 갯벌, 다 갖추고 있고 게다가 제일 좋은 명당자리에는 천년 사찰들이 있어요. 바로 이 ‘천년’이 마케팅 포인트예요. 천년이라는 숫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 시간과 역사, 스토리를 담고 있어요. 전국에 이런 조계종 사찰들이 있잖아요. 이것을 활용해야 합니다. 사찰마다 수행을 특화시켜 어떤 사찰에서는 어떤 수행을 한다고 특화하면 개인의 관심에 맞는 수행을 하러 올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것도 앞으로의 행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밖에도 한국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 젊은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6개월에 2천만원이나 하는 대학 어학당에서 배우는 대신 우리 같은 도심 포교당이나 사찰에서 한글을 배우는 건 어떨까요?”

준한스님의 솟아나는 아이디어와 원력을 듣고 있자니 함께 신이 나고 눈 앞에 좁다란 세상이 아닌 넓은 세상이 펼쳐지는 듯했다. 그런데 그 생각들이 허황되지 않고 현실적 필요에 바탕하고 있어 건실한 느낌마저 들었다. 준한스님의 새 바람은 이미 시작되었다. 🍵

## 낮에는 소아외과 밤에는 산사의 보살님, 박귀원 선생님

8차 108인 박귀원 선생님은 고난도 소아수술의 세계적 명의로서 동료 의사와 환자의 부모 사이에 '신의 손'으로 불리지만, 퇴근 후에는 작은 산사에서 비구니스님과 살아가는 '보살님'이다. 중앙대학교병원 구내 커피숍에서 6차 108인 강영자 선생님과, 조정숙 국장과 함께 박선생님을 만났다.



### 외할머니의 가족사랑, 하나님 사랑

저와 저의 가족은 외할머니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 살았어요. 외할머니는 조선말에 태어나 80년대 후반에 돌아가셨어요. 소녀 때 외할머니는 공부가 하고 싶어 가족 몰래 쓰개치마를 두르고 학당에 나갔다가 계집아이가 무슨 공부냐며 아버지의 외출금지령이 떨어져 아쉽게 꿈을 접었다고 해요. 결혼 후에는 남편이 독립운동을 돕다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외할머니는 성경책을 그대로 외울 만큼 머리도 좋으시고 신앙심이 독실하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낮에는 부모님이 병원 일로 바쁘셔서 외할머니가 우리집 살림을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저희들이 혹시라도 영향을 받을까봐 절 근처에는 아예 얼씬도 못하게 하셨죠. 오죽했으면 수학여행을 불국사로 갔는데 담임선생님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사찰 경내로는 들어가지 않았어요. 외할머니로부터 절 안에 사탄이 산다고 수없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사춘기때부터 저는 공부를 핑계로 교회에 잘 나가지 않았어요. 웬지 그 분위기가 부담스러웠거든요. (웃음) 그렇지만 외할머니는 탁발승들을 결코 박대하지 않으셨어요. 쌀을 퍼서 스님의 바람에 담아주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 어른을 살리면 몇 년을 살리지만 아기를 살리면 못 잡아도 80년은 살리는 것

저는 1972년 2월에 전문의가 된 후에 원자력병원에 근무했는데 당시 암 환자들이 병원에 많이 왔어요. 수술 후 재발하는 사람도 많았는데, 지금처럼 좋은 항암제가 없어 난감했어요. 마침 그때 김우기 은사님이 미국에서

소아외과 공부를 하고 오셨는데 저에게 소아외과 전임의를 하지 않겠냐 하셨어요. 당시는 소아과 레지던트를 보고 애니멀 닥터라고 놀리던 시대였죠. 주사 놓으려 하면 아기는 울지, 주사 놓을 자리는 잘 안 나오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은사님이 소아외과를 권하시니 저는 선뜻 답을 못 했죠. 얼마 후 은사님은 저에게 달래듯 “어른에게 암수술 해주면 기껏 몇 년밖에 못 살리지만 소아외과에서 아기들 살리면 못 잡아도 80년은 살리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 길로 소아외과를 선택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돌이켜 보면 은사님 말씀이 옳았어요. 처음에는 이 꼬맹이들 어떡하나 그랬는데 애들이 훨씬 회복이 빨라요. 어른은 잘 낫지 않고 수심 어린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애들은 잘 낫고 방긋방긋 웃고 하니깐 거기에 재미가 붙더라고요.

불자가 된 후에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저를 찾아온 아이와의 인연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이 아이가 나한테 온 것도 나와 무슨 인연이 있으니까 왔을 것이라 생각하게 되죠. 어떤 녀석은 고생을 시키다가도 괜찮아져서 나가는 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녀석이 있어요. 특히 처음에는 괜찮을 거다 싶었는데 쉽게 안 좋아지는 녀석들을 만나면 왜 무엇 때문에 안 좋아질까 고민을 많이 하죠.

**아버지 사십구재를 계기로 가랑비에 옷 젖듯 불자의 길로**

제가 불자가 된 데에는 6차 108인 강영자 선생님 덕이 많아요. 주말마다 선생님 부부와 함께 사찰에 다녔어요. 그분들은 저에게 불교 믿으라고 강요하지 않았고 저 또한 법당에 들어가거나 절을 하지는 않았지만 사찰이 점점 편해졌죠.

그러다 좀 특이한 일이 생겼어요. 저희 부모님과 형제들은 원래 종교에 관심이 없이 무교에 가까운 편이었어요. 2002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막 마쳤는데 둘째언니가 친구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꿈에 그 집 식탁에 어떤 신사분이 찾아와 내가 누구누구의 아버지인데 배가 몹시 고프니 밥을 달라고 했고, 그 꿈이 너무 생생하다는 거예요. 언니 친구는 우리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데 꿈에 본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바로 아버지였어요. 평소에 아버지는 굶어죽으면 죽었지 누구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실 분이 아니셨어요. 꿈 이야기를 듣고 남동생이 문득 49재를

를 지내자고 했어요. 평소에 남동생은 종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말이죠. 49재를 지내며 불교와 조금씩 가까워졌어요.

또 한 가지는 2000년대 초반 여의사회에서 당시 회장을 맡았던 분이 굉장한 불자셨어요. 늘상 “우리나라 국보 중에 박물관에 없는 것은 절에 다 있다.”라고 하시며 저희를 끌고 많은 절을 다니셨어요. 남쪽에 있는 절에 도착하려면 서울에서 적어도 3시간쯤은 가야 되니까 가는 동안 차 안에서 사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주옥 설명을 듣고 절에 도착하면 그래도 회



장님하고 갔는데 차에 앉아 있을 순 없잖아요? 내려서 직접 확인하다 보면은 ‘아 내가 절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후 우연한 기회에 능인선원 불교대학에서 기초공부를 하면서 점점 불교의 매력에 빠졌죠. 곧이어 춘천 감주사 시목 비구니스님과 자연스럽게 인연이 되어 지금은 감주사 가족으로 지내고 있어요. 저는 서울대병원 정년퇴임한 후에 사회생활은 다 접고 감주사에서 유유자적하게 살리라 꿈꾸었지만 선배의 부탁으로 중앙대병원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어요. 평일에는 기차를 타고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감주사에서 온전히 보내지요. 절에서 스님은 어떤 일도 안 하십니다. 저는 그저 스님이 기도하시거나 경을 읽을 때 가만히 옆에 앉아 있는데,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갑니다.

**6차 108인 강영자 선생님이 보는 박귀원**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면서 박귀원 선생님을 만나 거의 50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어요. 선생님의 부모님 임종도 선생님의 가족들과 함께할만큼 선생님 댁에서는 저더러 “너도 우리집 패밀리다.”라 할 정도로 각별하게 지내왔어요. 제가 서울대병원에 처음 왔을 때 선생님의 명성은 이미 대단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을 처음 보았는데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월급을 타시면 주위 사람들에게 늘 베풀기 때문에 정작 본인의 수중에는 돈이 없으셨고요. 선생님이 서울대병원에 계실 때 대기 환자가 하도 많아서 예약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선생님이 지나다니는 계단에 앉아 있다가 선생님이 병실로 들어서는 순간 쏜살같이 달려와 “교수님, 교수님한테 진료 받으러 왔는데 예약 안 해줘서 진료 못 받게 됐습니다.”라고 매달리면 선생님은 아기와 엄마를 병실로 데려와 끝내 치료를 해주시곤 했죠. 2010년부터 얼마 전까지 회장을 맡아 무료 의료봉사단체인 무량감로회를 이끌 때에도 선생님은 늘 한결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춘천의 산사에서 선생님은 특별한 수행을 안 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백팔배며 자비도량참법이 모두 조용히 함께 하세요. 심지어 자비도량참법에 나오는 절 숫자까지 다 정리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선생님이 특별한 수행이 필요치 않은 분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의 삶 자체가 수행이시거든요. 매일 생과 사를 넘나드는 아이들을 지켜내는 선생님이야말로 약사여래부처님이요 그 자체가 충분한 수행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이 누구나 다 그래요. 지금 살고 계시는 그대로가 청빈한 참수행자라고요. 🙏



## 영108 키즈들의 야단법석 템플스테이

까르르~, 와다다다~, 우당탕탕탕~

육지장사 템플스테이관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이쿠나, 10명의 아이들이 드디어 합이 맞았구네!’

1층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듣고도 아이들이 얼마나 신이 났는지 알 수 있었다.

<더 글로리>의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라는 말이 아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공방에서 신난 아이들

### 싱글 영108에서 부모 영108로

경기도 양주 육지장사에서 열린 <영108 가족 템플스테이>는 아이만 10명이 참여한 “영108 2세대”의 만남이었다. 아마도 미취학 아동이 중심이 된 템플스테이로는 불교여성개발원에서 주최한 것이 처음이지 않을까 싶다. 그만큼 미취학 아동과 함께 하는 행사는 어렵다.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기에 계획대로, 바람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어려운 모임이 성사된 것은 바로 이기향 원장님의 원력 덕분이다.

영108은 2011년 청년 불교 활성화를 위해 불교여성개발원 산하에서 창립되었다. 사찰 소관이 아닌, 20~30대 젊은 불자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자 그 효과는 엄청났다. 영108 회원들은 불교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야말로 한바탕 축제를 벌였다. 이태원 클럽에서 <BIP 음 파티>를 진행하고, 타 불교청년회를 초청하여 젊은 불자의 고민을 해결하는 토크 콘서트 <법륜스님의 신혼여행(신나게 혼나는 여행)>도 기획하였다. 신명 나는 행사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많았다. 바쁜 2~30대에게 맞는 명상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고 좋은 스승님을 모셔 명상에 대해 심도깊은 이야기도 나누며 마음 수련에 집중하기도 하였다. 그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된 <독서 모임>은 아직까지도 정기모임을 갖고 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지치지 않고 활동을 이어가던 영108 활동은 회원들이 하나, 둘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주춤해졌다. 아이가 태어나고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육아와 마주하는 동안 몇 년의 시간은 훌쩍 흘러버렸다. 다시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간절해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 막막했다. 영108이 창립될 때부터 응원을 아끼지 않았고, 영108이 다시 예전처럼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길 진심으로 바라왔던 이기향 원장

님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하여 ‘아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계획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부모와 아이가 잠시 떨어져 부모들만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넣은 것은 육아에 지친 영108도 사찰에 와서 잠시라도 쉴 수 있기를 바라는 ‘엄마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와, 가족과 함께 불교를 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만들어준 원장님의 마음은 부모가 된 영108의 마음에 바람을 일으켰다.



마장호수 둘레길 걷기

### 영108 키즈들의 첫 만남!!

6월 10일 토요일 아침, 10명의 “영108 키즈”들은 우리 영108들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들의 권유와 회유와 꼬드김에 넘어가 부처님의 집으로 놀러 갔다. 오랜만에 만난 부모 영108은 그간의 안부를 나누자마자 곧바로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된 육아의 고충에 대해 토로하며 격한 공감의 시간을 가졌다. 만남의 기쁨을 느끼는 엄마, 아빠와 달리 처음 만난 아이들은 눈치작전을 펼치기 시작했다. 누가 먼저 말 걸어주나, 누가 나보고 놀자고 하려나, 부끄러운데 말은 걸고 싶고... 아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주춤주춤 머뭇머뭇, 엄마 아빠 곁에서 떠나지 못하고 어색한 기운만 감돌 뿐이었다.

쫓겨다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간단히 집을 풀고 난 후 다 함께 근처 마장 호수의 둘레길을 걸으며 산책했다. 어른들의 눈에는 특별한 것 없는 산책코스였으나 아이들은 신이 나서 연신 “우아~ 저것봐.”를 외치면서 조금씩조금씩 마음의 문을 스프르 열어가고 있었다.

산책을 마칠 무렵에는 6살 언니와 5살 동생은 한 팀이 되어 스님 뒤에서 “내가 1번, 네가 2번이야”라며 손을 잡고 함께 걷기 시작했고, 6살 동갑 남자친구들은 상어 이야기하며 서로를 살피더니 돌아오는 길에 달리기 시합하며 단짝이 되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순식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물들어 가고 있었다.

### 아이들에게 인기 폭발! 준 약수 모유정(母乳井)

산책을 마친 후에도 설렘과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아이들은 육지장사 지원스님의 세심한 배려 속에서 본격적인 놀이를 이어갔다. 육지장사는 중앙에 대웅보전을 중심으로 좌우에 수선당, 선재당이 있다. 수선당 앞의 약수 모유정(母乳井)과 중앙에 구병(救病) 지장보살님 앞에 있는 ‘물’이 아이들의 대동단결을 이끌어냈다. 약수 모유정에 올망졸망 모인 아이들은 모유정 안에 있는 동전을 다시 모아서 던지면서 누가 중앙에 있는 지장보살님 안에 동전을 넣는지 시합도 하고, 구병 지장보살님 앞의 연꽃으로 뱃놀이도 하였다.

물을 만난 아이들은 ‘물 만난 고기’처럼 시간 가는 것을 잊은 채 물놀이 삼매에 빠졌다. 너무 사이좋게 어우러져서



약수 모유정의 물놀이



지장보살님과 연꽃 뱃놀이

잘 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원장님은 아이들 만남이 이번이 처음인지 연신 되물어볼 정도였다. 아이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물놀이에 푹 빠져있는 동안 부모들도 모처럼 부처님의 시원한 그늘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 어색했던 대웅보전의 반야심경

대웅보전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이상하고 낯선 광경에 어리둥절했다. 부모들을 따라 방석을 깔고 그 위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 옆의 친구가 일어나면 나도 일어나고, 옆의 형이 절을 하면 나도 절을 하고, 엄마 아빠가 고개를 들면 아이들도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스님의 반야심경 독송이 시작되자 재미있는 광경이 벌어졌다. 몇몇 아이들이 자신들만의 반야심경(?)을 독송하기 시작했다. 중얼중얼 웅얼웅얼. 아마 그들이 아는 모든 말을 다 읊조리지 않았을까 싶다. 혹은 말이 아니라 그냥 웅얼거리는 소리였을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은 반야심경 리듬을 타며 저마다의 반야심경을 만들고 있었다.



### 영108 키즈들의 108 범종

대웅보전 밖에는 108개의 범종이 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기뻐하고, 고통과 고뇌에 찬 중생들에게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고, 축생계와 지옥계에도 범종 소리가 울리면 고통도 멈추고 돌아가신 조상님들도 극락 왕생한다고 한다.

“종을 치면서 지장보살 3번을 염송하고, 65번 종을 친 후 구병 지장보살님께 7번 기도 드린 후 다시 66번 종을 이어서 치는 것입니다.”

종을 보고 흥분한 아이들 앞에서 스님의 단정한 설명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아이들은 마치 천둥의 신 토르가 된 것처럼 모두 종 망치를 들고 108개의 범종을 치며 대웅보전을 끼고 한 바퀴 돌았다. 10명의 아이들이 연속으로 치는 종소리는 끝나지 않는 멜로디가 되어 육지장사를 에워쌌다. 우리 아이들의 첫 종소리가 부처님의 귀에도 들리고 극락세계에도 전해졌을까.

108 범종을 치는 고사리 손 지원 스님을 따라 범성계도를 도는 아이들

육지장사 템플스테이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수선당 1층 공양간이었다. 부모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시간이 끝나고 대망의 하이라이트는 이기향 원장님이 약속하신 아이들과 분리된 <부모들의 휴식 시간>이었다. 하나둘씩 부모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떠나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지장보살 색칠하기>를 마친 아이들은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뛰기 시작했다. 미취학 아동들이 좋아하는 옹기부터 시작해서 괴물 놀이, 얼음땀 등 그냥 막무가내로 뛰며 자기들만의 알 수 없는 놀이가 시작되었다. 지원스님께서 “뛰지 말아라.”, “조용히 놀아라.”라는 말을 아이들에게 일체 하지 말 것을 부모들에게 신신당부한 덕분에 다치지만 않으면 뛰든지 수선당 1층 공양간은 아이들 한정으로 무엇이든 허용하는 공식적인 “예스 키즈존”이 되었다.

아이들의 시끌벅적한 웃음소리와 층간 소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발망치 소리가 그대로 들려오는 2층에 모여 앉아 스님과 차담을 나누다가 문득 부처님이 계신 절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이 가장 즐겁게 놀 수 있는 놀이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이 뒤섞여 뛰어놀다 보면 사건 사고가 생기기 마련인데 역시 가피를 입은 <영108 키즈>라서 그런지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누구 하나 울지 않았다. 덕분에 부모와 아이들 모두 행복한, 완벽한 ‘쉼’의 시간이었다.



원장님과 함께하는 미술시간

### 나의 영108이 아이들의 영108이 되길

불교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기에 1박 2일은 너무나 짧았다. 게다가 절에 처음 온 아이들도 있었으니 한 번 체험에 모든 것을 얻어가길 원하는 것은 욕심이다. 영108의 부모들 역시 불교에 대해 가르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은 아니었다. 10여 년 전, 각자 신행 활동에 자신이 없었던 우리 역시도 종교가 같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것이 통한다는 것을 첫 만남부터 느끼지 않았던가. 회사 생활에 치이고, 결혼하고, 살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며 자주 보지 못했으나 ‘영108에서 만난 친구’라는 것 하나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다.

심도 있는 가치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때도, 다른 친구들한테 공감받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영108 안에서는 누구 하나 불편해하지 않았기에 마음이 술술 통했다. 우리는 비슷한 결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이 온도가 편안함을 주었다. 종교라는 것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내가 가진 가치관의 근간인 것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다.

부모가 되어서 다시 만난 영108 친구들과 ‘아이와 함께하는 템플스테이’를 마치며 이제는 나뿐만 아니라 나의 배우자, 나의 아이가 “불교”라는 가치관 안에서 영108과 같은 도반을 만나 그들만의 영108 키즈를 꾸리길 바라는, 작은 서원을 세우게 되었다. 🙏



## 15회 바자회를 마치며

6월 2~3일에 한 바자회는 불교여성개발원이 청운동으로 광장을 이전하면서 처음하는 바자였다. 이전과는 공간이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나 공간에 맞는 새로운 틀로 이루어져야만 하였다. 공간 조성 과 함께 바자를 치루어야하는 어려움도 있었다.



### 먼저 바자회 운영의 기본 방침을 세우다.

오래전부터 바자회는 여성불자108인회 주관으로 회장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행사로 알려졌다. 이번에도 다르지는 않았다. 그러기에 목적은 여성불자108인의 단합과 나눔, 봉사활동을 위한 기금 마련이었고, 수익금은 광장 기금 (50%), 지혜 장학금(25%), 108인회 기금(25%)으로 쓰이고, 차수를 중심으로 회원 간의 친목도 중요한 것이었다.

### 먼저 기본 운영 방침을

- 첫째, 광장 이전 이후 처음 맞는 바자회로서 우리 건물에 적합한 모델 구상과 운영,
  - 둘째, 5월 가정의 달과 부처님 오신 날 등 행사에 연계된 다양한 바자 형태 모색,
  - 셋째, 회원과 차수 모두가 주인이 되는 자비 나눔과 봉사 그리고 축제의 장으로 화목과 유대감
  - 넷째, 치밀한 운영계획 수립과 추진, 홍보, 진행, 사후평가 등 짜임새 있는 운영,
  - 다섯째, 개발원의 현 재정 등 상태에 맞는 건축, 판매 방식, 수익창출
- 등으로 방향을 정하였다. 다른 때보다 이르게 4월 하순에서 5월 중 일부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다.

### 추진 일정과 업무 담당은 구체적으로

추진업무와 담당, 기간, 세부추진사항등의 일정을 구체화하여 108인회장이 총괄하여 줌회의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진행하여 보았다. 바자회의 추진 방향과 아이템 구상, 물품 선정과 추진, 각 차수장 중심의 물품 판매 준비와 홍보, 판매 전략과 관리, 회계 정리, 전시장 배치와 물품 전시 계획, 홍보와 초대장 제작 발송, 물품 라



벨링에서 봉사자 확보, 초대 인사 접대, 청소 및 분리수거, 이후 평가회 및 정리까지 치밀하게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하였다. 이후 바자회에도 쓸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보완하고 다듬고 하다보면 지금은 성글어도 좋은 계획안이 될 것이다.

### 전시장 배치는 유목화로 업그레이드

다자인과 전시 전문가인 이기향 원장님은 개발원 건물에서 소품에 이르기까지 공간 조성에 매우 적극적이였다. 이전에는 차수별로 바자 공간을 배치하였다면 이번에는 바자물품을 유목화하여 구매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짜임새 있게 전시공간을 공간을 구성 하였다. 물론 여기에는다층의 좁은 공간의 한계와, 바자회 품격을 높이려는 홍보기획도 판매 목적 외에도 전시 구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입구 주차장에는 먹거리 장터(푸드존)로, 부침개와 떡볶이, 젓갈, 냉음료와 과일 등이 자리하였는데, 그 메인에는 바자회의 출품된 주요 선풍이 예쁘게 단장되었고, 입구에는 4층까지 전시된 물품을 안내하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1층에는 오신 손님들을 맞이하는 접대공간으로, 2층에는 복식(服飾)류를 중심으로 하여 의류와 주얼리와 악세서리, 휘향스카프, 가방, 화장품, 이불, 책에서 빈티지까지, 3층에는 먹거리와 주방용품이 중심이었다. 각종 청장, 자연발효식초류, 각종 오일, 면류와 미역, 빵과 견과류에서 장뇌산삼 등에 이르기 까지 있었다. 4층의 카페108에는 차와 커피, 스네류가 마련되었다. 특히 천상의 이슬차 체험은 차와 명상을 인왕산과 북악을 가까이 두면서 했던 체험의 장이었다. 그리고 수익사업단과 다문화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하였다.

### 나눔과 봉사의 함께하는 바자회를 마무리하며

바자 결과는 처음의 목표액보다는 꽤 좋은 결과를 보였다. 바자회에 대한 긍정으로는 품목이 다양화되고, 회원 간에 화기에애한 모습이 아름다웠고, 쿠폰발행이나 인기 상품의 지속적 확대를 꼽았고, 보완점으로는 후원이나 물품 제공한 분께는 감사 인사 등 추후관리, 단층의 넓은 공간으로 바자 공간 확대 모색도 있었다. 이번 바자회를 최종 결산하면서 예년보다 바자회 성과가 좋고, 광장기금 보안을 위하여 지혜장학금과 108인회 기금을 각 500만원, 나머지는 광장기금으로 한다는 안이 108인회 임원회의에서 결정되었음도 알려드리며, 앞으로 바자회가 더 성숙하고 훌륭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발원하면서 바자회를 애써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 제18회 샤카디타 세계대회 참가 - 워크숍 「불교여성개발원의 조직과 역할」

“우리 불교여성개발원이 포교원으로부터 독립하고 청운동에 독립된 불교여성광장을 세웠으니, 우리의 존재를 국내 외로 알려야겠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고 있는 즈음, 마침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열리니, 불교여성개발원 차원에서 <워크숍>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부원장의 한 소임으로 발표를 맡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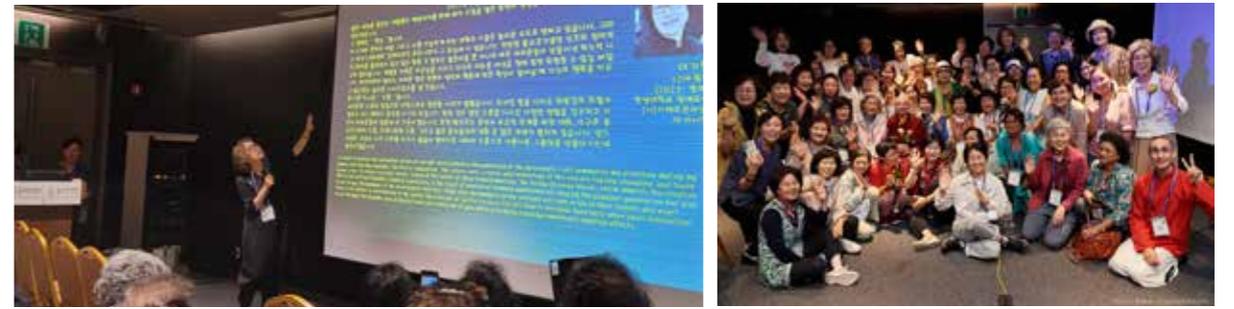
샤카디타 회원국 중 31개국의 해외 회원과 국내 회원 등 2,000여명이 모이는 샤카디타 세계대회가 서울에서 열린다! 한국 여성 불자들 특히 각 지역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가여성불자 108인들의 23년 역사를 지닌 독보적인 단체로서, 설립 20년에 이르러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으로부터 독립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재가 여성불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불교여성개발원으로 거듭난 우리의 위상과 가치를 공고히 하는 워크숍에 정성을 쏟아야 할 가장 확실한 까닭이었다.

워크숍 소임의 무게를 깨닫고, 120분을 엮을 진행 구도를 세우고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다. 20년이란 시간을 돌아보고 그간의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며, 120분간 말로 읊고 그림으로 보여줄 20년간의 사업 내역과 관련 사진자료가 차고 넘치고 있었다.

우선 6차 108인으로 선정된 후 제가 직접 경험해온 지난 10년간의 기억을 더듬어 소장하고 있던 사진자료와 활동 기록을 찾았다. 더불어 가장 정확하고 중요한 자료의 길잡이가 될 불교여성개발원의 브로셔를 비롯하여, 우바이에 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식적인 기록을 살펴보았다. 기록에 담긴 순간순간이 역대 원장과 회원들의 정성과 기

도로 가득하여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길 수가 없었다. 나아가 그토록 귀하고 많은 사업 중에 어느 부분을 취사선택할지, 2시간 동안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해야 우리 불교여성개발원을 생생하고 흥미롭게 속이 꽉찬 단체로 소개할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졌다.

마침 청운동 불교여성광장 4층 전층을 활용하며 기금 마련 바자회에 참여했던 각 센터 회원들의 열정과 봉사정신을 떠올라, 워크숍에서도 역



대 사업들의 규모와 다양성, 각 센터의 특징과 가치를 생생하게 드러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감사하게도 이기향 원장께서 불교여성개발원의 상징, 로고를 비롯하여, 시각적으로 눈에 뜨일 수 있는 여러 측면을 살펴주고, 조정숙 국장은 보관되어 있는 사진과 우바이에찬 등에 실린 자료를 찾아 제공해주었다.

불교르네상스의 꿈 I 부분에서 원장께 단청 소재 스카프를 소개할 계획을 말하니, 위즈덤합창단원과 함께 5분 패션쇼를 구성해주었고, 명상리더십센터 소개를 준비하며 화훼명상 의논하니 정진희 이사께서 꽃 명상을 인도하고 장미를 선물로 주었다. 이란 부원장의 차명상, 이정호 부원장의 놀이치료상담, 생명존중운동본부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도 기획했으나 시간상 고운 다기 세트 전시와 ppt로 만족해야 했다. 연잎밥 홍보에 이어, 최혜경 수의사업단장이 밤새 지어온 약식 시식코너는 외국인도 비롯한 워크숍 참가자 모두를 만족시키고 흥분시켰다. 위즈덤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창으로 「우리도 부처님같이」를 다같이 합창하고, 노인자 행복가족센터(구,다문화봉사단)의 태극권 동작을 따라하며 호흡을 가다듬고 관절을 펴보기도 했다. 워크숍 마지막 즈음에는 김인숙 전 원장 초대로 한국

을 방문한 텐진 바모스님을 이번 샤카디타세계대회 공동대표인 조은수 교수가 모시고 와서 더욱 뜻 깊고 빛나는 자리로 승화시켜 주었다.

2001년 불교여성개발원 설립 취지문으

로 시작하여, 2010년 불교르네상스의 꿈 I, 2017년 불교르네상스의 꿈 II, 2022년 불교여성개발원 독립, 2023년 청운동 불교여성광장 건립에 이르기까지, 불교여성개발원은 새 역사를 여는 발원을 거듭해왔다. 한국전통문화 속 여성으로서, 한국 불교문화권 내 재가불자여성으로서, 4차산업혁명시대 대한민국의 전문여성으로서, 불교여성개발원의 역대 원장들과 회원들은 매 순간 도전과 개척, 봉사와 헌신으로 역사를 창조하고 전승해왔다. 2023년 불교여성개발원의 조직과 역할이 또 한 번 도약하기를 기원한다. \_()\_ 🙏



## 연근브로컬리 샐러드, 오이 물김치

버릴것이 없는 연은 연잎과 뿌리와 열매 모두 훌륭한 식재료로 우리의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조직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고 식감이 좋습니다. 특히 뿌리인 연근의 효능과 다양한 요리방법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연근과 브로컬리 혼제연어를 재료로 샐러드 만드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의 땅속 줄기인 연근에는 빈 구멍이 있고 조직이 단단하며 씹히는 맛이 산뜻합니다. 연근은 성질이 따듯하고 맛이 달며 독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로 연근은 여러 가지 출혈을 멎게 하는 지혈작용과 열독을 풀고 어혈을 삭히며 토혈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생것은 토하거나 설사를 한 뒤에 허해서 나는 갈증을 멎추게 하고, 찌서 먹으면 오장을 아주 잘 보하며 하초를 든든하게 합니다. 쇠해진 기력을 금세 회복시키며 꾸준히 섭취하면 몸이 거뜬해지고 배고픔도 있을 수 있는 좋은 식품 중 하나입니다.



조리법으로는

- ◎ 썰어 데쳐서 전을 부치거나
  - ◎ 다져서 동그랗게 만들어 전을 부치면 어린이나 환자에게도 좋은 밑반찬이 됩니다.
  - ◎ 흔히 많이 애용하시는 조림
  - ◎ 살짝 데쳐 식초, 설탕, 소금으로 피클을 만든 방법 등
- 다양한 조리법 중에 오늘은 브로컬리와 같이 샐러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 연근브로컬리 샐러드

재료: 연근 중사이즈 2개, 연어 200g, 양파1개, 브로컬리 1개, 마요네즈, 씨겨자, 후추, 소금

\*혼제 연어 대신 대하를 살짝 찌서 어슷 저며 사용해도 됩니다)

냉동고에 넣어둔 혼제연어는 요리하기 1시간 전에 꺼내 놓으면 금방 녹습니다.

- 1) 먼저 연어에 레몬즙을 골고루 뿌려 놓습니다.
- 2) 껍질 벗긴 연근을 어슷어슷 썰어 소금물에 데치고, 브로컬리도 같은 방법으로 데칩니다.



- 3) 양파를 얇고 가늘게 채썰어 찬물에 담근 후 채에 받쳐 놓습니다.
- 4) 연근과 양파, 브로컬리를 볼에 담아 마요네즈와 씨겨자, 후추를 갈아 넣어 버무립니다.
- 5) 마지막으로 연어를 한 겹씩 떼서 넣어 살짝 버무려 마무리합니다.



이어서 여름철 대장식재료 오이로 간단하게 국물소박이 김치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재료: 오이 2개, 무우(채썰어 한움큼), 사과 2/1, 파 1줄기, 마늘 소량, 생강 소량(생강청을사용하면 좋음) 매실청 소량 맑은액젓 소량, 소금, 설탕, 밥 한수저를 믹서에 간 물 한 컵.

만드는 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 오이를 깨끗이 씻어 표면 거친 부분을 벗기고 4-5cm로 잘라 오이 속에 소금간을 살짝 합니다.
  - ◎ 오이가 살짝 절여지면 준비한 속을 넣습니다.
  - ◎ 차곡차곡 넣은 오이 위에 찹쌀풀 또는 밥을 같은 물을 붓는다. 풀(밥)물을 만들 때 소금을 살짝 넣어 갑니다. 속 넣은 오이가 잠기면 하룻밤 지나면 물김치가 됩니다.
- 매실청을 조금 넣어도 됩니다.

\*이번 호는 경기도 광주의 검단산 각화사에서 숲속 식탁을 꾸며보았습니다. 🍵

사무국 소식

○ 정기운영위원회

4월 13일, 5월 11일 이기향 원장, 이사장이 주재하는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 및 결산 심의를 하였다. 6월은 바자 종료 후 15일 108인 차수임원들과 함께 확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바자 평가 및 결산을 심의하였다.



○ 불교박람회 참가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학여울역 세텍(SETEC)에서 개최한 제10회 불교박람회에 본원 홍보를 위해 처음으로 참가하였다. 윤달을 맞이하여 황토수의(자연농원 대표 강서경), 이불, 스카프와 함께 호두, 호두 기름 등을 판매하고 수익금 420여만원을 확보하였다. 특히 이기향 원장은 불교여성개발원 CI를 봉사자들 옷에 부착하여 본원 홍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박



람회에 참석한 영108 회원들과 소통하고 템플스테이를 구체화시킨 계기가 되기도 했다.

○ 『프란체스카리 스토리』 저자 이순애님 초청 특강

4월 19일 지혜실에서 이순애님을 초청해 특강을 가졌다. 김인숙 고문과의 오랜 인연으로 오스트리아에 거주 중에 한국 방문 일정에 맞춰 초청하였다. 이영미 전 108인회장이 사회를 보았다.



○ 금강경기도 동참자들 삼보사 지원스님 방문

5월 3일 불교여성개발원 금강경기도 동참자들은 개발원의 전 이사장이신 지원스님이 계시는 은평구 삼보사를 참배하고 금강경 특강을 들었다. 점심공양 후



사무국 소식



3층 법당에 올라 건강한 심신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 삼십 분 이상 뒷꿈치 들고 걷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 실제 연습하며 알찬 시간을 보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참석자들이 보시금을 모아 삼보사에 등공양을 올렸다.

○ 부처님오신날 맞이 군포교 자비나눔 선물 전달

5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 동안 부처님오신날 맞이 제12회 군포교자비나눔 선물 모연을 공지하고, 5월 17일 10시부터 포장을 하였다. 모연에는 129명이 참여 13,809,500원을 모아 선물 구입, 박스, 택배 발송비 등에 12,247,380원을 지출하고 잔액 1,562,120원 중 서울소년원 지정기탁금 50만원(이순이 20만원, (사)날마다좋은날 30만원) 외에 잔액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행복가족센터(구,다문화봉사단)와 교정교회센터에 50%씩 지원하였다. 포장일에 정경연 전 원장이 점심공양을 후원했다.



○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재위탁 심사 통과

5월 19일 (사)지혜로운여성이 위탁운영중인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 재위탁 심사에 양현정 원장과 조정숙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 이후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을 방문해 원장, 교사, 급식 선생님 등 모두 한마음으로 운영중인 어린이집을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재위탁 통과라는 반가운 소식을 들었다.



○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 본원

여성광장 방문

5월 11일 보인스님께서 3월에 본원에서 터키, 시리아 지진피해돕기 모연금 1,700만원을 터키 현장을 방문하여 대리 전달한 소식을 보고하러 본원을 방문하였다. 보인스님은 청운동 본원 여성광장을 1층에서 옥상까지 돌아보고 개원을 축하해 주었다.



○ 우바이예찬 편집회의

5월 26일 지혜실에서 이기향 원장, 형난옥 편집위원장과 김원숙, 조정숙 편집위원이 참석하여 85호 평가와 86호 기획회의를 했다.

## 사무국 소식

### ○마하마아페스티벌

6월 3일 인사동 토드에서 (사)지혜로운여성이 공동대표단체인 성평등불교연대에서 제8회 마하마아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이기향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였다.



### ○금강반아바라밀경 100일기도 회향 및 입재

3월 3일 입재한 금강경 100일기도를 6월 10일 회향했다. 40여 명이 참여하여 매일 새벽 5시에 단체 특방을 통해 기도시작을 알리고, 1시간여 기도 후 기



도 종료를 알리면서 이어가고 있다. 기도 후 기도비 매일 1천원씩을 모아 회향일에 맞춰 지혜장학금으로 보시하고 있다. 금강경 100일기도 회향 기도비는 31명이 동참하였다.

### ○청도 운문사 운산스님 49재 참석

6월 14일 전임원장 이인자, 김외숙, 김선옥 전임원장과 이기향 원장, 조정숙 국장이 청도 운문사 운산스님 49재에 참석하였다. 함께 참석하지 못한 노숙령, 김애주, 정경연 전임원장, 108인회 남동현 회장은 49재 공양금을 보시하였다.



### ○선림사 보우법사 불교여성광장 방문

6월 16일 10차 108인 보우법사께서 금강경 100일기

도 회향 및 이은 금강경 100일기도 입재를 위해 서울 불교여성광장을 방문하셨다. 보우법사는 2022년 3월부터 자비도량참법, 반야심경, 법성계에 이어 올해 금강경까지 100일기도를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주고 있다.



### ○제18차 세계여성불자대회 참석

6월 23-2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한 제18차 세계여성불자대회에 회원 46명이 단체등록하여 개막식에 앞서 세계명상체험과 개막식, 그리고 회향식까지 함께하였다.



26일 워크숍 시간에 정대련 부원장이 “불교여성개발원의 조직과 역할”에 대해 발표하였다. 각 센터 활동으로 최혜경 건강밥상지킴센터장의 약밥, 정진희 지혜아카데미 팀장의 꽃명상, 노인자 행복가족센터 센터장의 태극권 시범, 그리고 워즈팀합창단의 단청 패션쇼도 함께 시범을 보였다. 김인숙 고문의 초대로 대회에 참가한 텐진빠모스님께서 청운동 여성광장을 꼭 방문하려 했으나 일정이 맞지 않아 워크숍 현장을 방문했다. 빠모스님께 회원들이 보시금 3백만원을 전달하였다.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여성불자108인회 임원회의(회장 남동현, 6차 108인)

매월 첫 번째 목요일 오후 2시에 여성불자108인회 각 차수별 임원들은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활동을 심의한다. 4월 6일, 5월 4일 회의에서는 워크숍 평가 및 상반기 주요 사업인 바자에 대해 논의하였다. 6월 15일에는 본원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바자 평가 및 결산을 심의하였다.



### 5차 108인회(차수장 노인자)

4월 19일 번개 모임을 가져 전시회 관람, 공양, 차담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올해 바자 품목에 대해서도 의논하였다.

6월 5일 이틀동안 5차 회원들은 저녁공양을 함께 하며 바자 참여의 노고를 격려하고 도반애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 9차 108인회(차수장 김숙애)

4월 7일~8일 이틀동안 김숙애 차수장 포함 회원 10명이 경기도 양평 상원사, 용문사로 템플스테이를 다녀왔다. 1박을 하면서 차수의 공식적인 활동 기록으로 남겨 함께 못한 회원과 다음 집행부에 공유하기로 하였다.



### ○교정교회센터(센터장 윤덕심, 9차 108인)

5월 2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여 고봉중고등학교 불교반 학생들에게 간식을 후원하였다. 윤덕심센터장과 이수연 연구교육팀장이 참석하였다.



### ○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성연, 10차 108인)

5월 6일 가족지원센터 좋은벗모임 사기순팀장 포함 회원은 한부모가족의날을 기념하여 모두하나대축제에 부스를 설치하여 참석 선착순 50명에게 차를 선물하고 음료를 제공하였다.

### ○건강밥상지킴센터(센터장 최혜경, 2차 108인)

5월 28일 6월 바자에 판매할 맛간장을 만들었다. 신선한 국산재료를 16가지로 만든 맛간장은 바자 전 주문 완료되었다.

6월 18일 경기도 광주 각화사에서 우바이예찬 건강한

## 산하기관 센터 소식

먹거리 이야기 원고 작업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였다.



### ○ 명상리더십센터(센터장 김영희, 9차 108인)

3월13일부터 시작한 <차와 선> 12회 강의 수료 기념 참선여행을 설악산으로 다녀왔다. 김홍근교수 안내로 이기향 원장과 거사 유필화 교수도 함께 28명이 신흥사, 권금성, 화암사 헌다, 동해 바닷가 모래위 명상, 화진포 김일성별장, 라벤더팜 관람 일정이었다.

첫째날 점심 공양 후 권금성 넓다란 바위에 드러누워 와선을 할 때쯤 적당한 구름이 태양을 가려주고 따끈하게 데워진 바위 온도를 등줄기를 통해 느끼면서 자연과의 합일된 시간이 감동이었다.

저녁시간에는 설악동 변보살님 맥에서 첫날 차와선 수료를 기념하여 “리큐에게 물어라” 영화관람 종강 기념



식을 하였다. 참석한 박기옥(108인회 총무) 회갑일을 맞아 참석자 모두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둘째날 화암사에 도착해 김영희 센터장이 준비한 헌다(獻茶)에 모두 참여하였다.

무탈하게 매끄럽게 진행된 참선여행을 마치며 참석한 수강생들 모두 환희심으로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 불교여성연구소(소장 김진, 2차 108인)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 후속작업을 위한 대한 불교진흥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올 여름에는 각종 불교의례에 대해서 불자들이 직접 발원문을 쓰는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특전 : 불자를 위한 실생활 가정의례" 책자에 참여한 분들의 발원문작품 등재/참여한 분들에게 소정의 상품 증정

일시 : 1회 - 7월 12일(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성인대상(불자/비불자포함)

2회 - 8월 09일(수) 오후 2시30분~4시30분, 성인과 아동 대상 (모두 포함)

장소 : 불교여성광장 지혜실

문의 : 02-722-2101



### ○ 생명존중운동본부(본부장 이순재, 8차 108인)

2월 25일 청운동으로 이전 후 총운동, 부암동 지역주민들이 지나가다가 의향서 등록 기관임을 확인하고 작성하고 간다. 생존부 상담사들의 적극적인 봉사로의



## 산하기관 센터 소식

향서 작성회원이 3천건을 넘어서고 있다.

### ○ 영108 가족과 함께하는 템플스테이

6월 10일~11일 1박 2일 동안 제1회 영 108 가족템플스테이를 양주 육지장사에서 진행했다. 젊은 불자 활성화화를 위해 개최한 템플스테이에는 26명이 참가했으며 영 108인 6가족과 108인회 남동현 회장과 딸이 함께 있다. 제2회 때부터는 사전준비와 프로그램의 세부화가 절실하다.



### ○ 역사문화답사(해설사 안영, 10차 108인)

4월 27일(1회), 5월 25일(2회), 6월 22일(3회) 총 3차례 역사문화답사 시간을 가졌다. 4월 27일은 “오래된 서울, 가까운 한양” 주제로 환구단(圓丘壇)과 덕수궁을 다녀왔다. 환구단은 조선 고종때에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건설하였고, 대한제국의 자주독립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상징적 시설로 원구단으로도 불린다. 5월은 피맛거리, 경복궁으로 답사를 하고 청운동 불교여성개발원으로 와서 차담을 가졌다. 6월은 은평구 진관사를 참배하였다. 절에 다니면서도 내가 누구한테 절을 하는지가 궁금했다던 참석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였다. 사찰음식전문 사찰답게 국내외 방문

객이 많아 삼천사 동출스님 도움으로 진관사에서 점심공양도 함께 하였다. 공양 후 진관사 옆 삼천사도 참배하여 동출스님으로부터 삼천사의 벽화, 8상 성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들었다.



### ○ 지혜아카데미(팀장 정진희, 3차 108인)

4월 21일 2강 이은영(1차 108인) 고문을 모시고 독일 유학이야기, 5월 19일 3강 김영희(9차 108인)의 “차를 만나다, 나를 만나다” 6월 16일 4강 이영주(7차 108인)의 “옛날 옷 리폼하기”를 강의하였다. 지혜아카데미는 108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서로 나누는 학습사회 조성을 위한 강의로 진행되었다.

옛날 옷 리폼하기 강의 후 지구 환경보고 이슈에 부합하는 주제임을 공감하고 지혜아카데미에서 리사이클링 공모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 산하기관 센터 소식

### ○ 융심리학 세미나(실장 이정호, 2차 108인)

5월 12일부터 7주동안 미술심리상담사 자격증과정 이론수업으로 융심리학 세미나를 개설하여 9명이 참여하고 있다. C. G. JUNG의 강연과 논문을 모은 융 기본저작집 1권 『정신요법의 기본문제』를 교재로 정한 분량을 예습하고 그 내용을 수업시간에 토론하는 형식으로 융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다.



### ○ 날란다 독서모임(반장 조명숙, 8차 108인)

4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30명의 독서반 회원 중 13명이 『생명을 묻다』을 한주제씩 정리하여 돌아가며 발표하였다.



### ○ 위즈덤합창단(단장 황경자, 8차 108인)

4월 11일 창단 10주년을 맞이한 위즈덤합창단은 김양희 지휘자와 함께 메주 화요일 오후 3시부터 즐거운 찬불가 연습을 이어 가고 있다. 이기향 원장, 남동현 108인회 회장은 축사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하고 불교여성개발원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합창단의 지속적인 발전을 축원하였다. 연습에 앞서 김옥경 라인댄스 강사



의 지도로 여성광장이 활기가 넘친다. 라인댄스와 위즈덤합창단원을 수시로 모집중이다.

### ○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단장 노인자, 5차 108인)

4월 9일 자비실에서 정기법회를 개최하고 여성광장 4층 108카페에서 한선희 총무가 마련한 카레라이스를 먹고 마음나누기 시간을 가졌다. 6월 2일 3일 이주여성들과 함께 여성불자108인회 주관 바자에 참여하여 건망고, 캐슈넛 등을 판매하여 70만원 이상 수익을 올려 다문화 활동비로 쓰기로 하였다. 한편 5월에 불교여성개발원 정기 운영위원회를 통해 '불교여성다문화봉사단'을 '행복가족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 ○ 도봉방학가람어린이집(원장 양현정, 8차 108인)

5월 13일 1학기 학부모 참여수업 "가족 미니 체육대회"가 경기도 양주시 상상농원에서 3년 만에 열렸다. 가족들과 함께 마음껏 뛰어놀면서 힘찬 응원으로 짜파게티 팀 사골곰탕 팀 이겨라를 실컷 외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회원동정

### ○ 김연화(6차 108인)

김포시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3월 23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제10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였다. 김포시가족지원센터는 2007년 개소하여 다양한 가족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 친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5월 11일에는 김연화 센터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 ○ 이숙연(6차 108인)

종로구 다문화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불교여성개발원 다문화봉사단에 애정을 갖고 다문화 아이들에게 가방, 만화책, 옷을 기증하였다.



### ○ 임순덕(5차 108인)

『나는 시니어 임순덕』 3권을 발간하였다. 평소 "일상이 명상"임을 강조하며 자택 향래가에서 명상을 지도

한다. 네이버 블로그도 3년째 운영중이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1시간여 블로그 글쓰기를 한다.



### ○ 정영수(4차 108인)

6월 10일 정영수 전 부원장은 구순을 맞이하여 불교여성개발원 회원 최혜경, 정진희, 이영미 회원이 찾아가 함께 축하연을 했다. 정 전 부원장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개발원 재정을 돕기 위해 현재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굳건한 신심으로 늘 보시를 생활화하는 참불자의 아름다운 90인생을 찬탄하고 만수무강을 기원하였다.

### ○ 여성광장 청소봉사

황외숙 4차 108인, 강영자 6차 108인, 정재선 9차 108인, 권승오 9차 108인은 월 1회 여성광장(2층, 3층, 4층, 카페108) 청소봉사를 한다. 여성광장을 애정으로 쓰고 닦는 아름다운 마음에 감사드린다.



##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3.4.1~2023.6.30)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후원 깊이 감사드립니다.

<b>불교여성개발원 이사회비</b>	안애원(7차)	1,000,000	김은주(10차)	40,000	오가남(10차)	100,000	정주현	20,000
김옥숙	양숙자(5차)	1,000,000	남동현(6차)	30,000			정희자	30,000
원유자	양재화(7차)	1,000,000	남동화(3차)	30,000	<b>회원회비</b>		조귀자	30,000
이기향	어순아(9차)	1,000,000	노희순(3차)	15,000	강희출	15,000	조문경	40,000
황경자	엄희원(10차)	1,000,000	문보경(6차)	30,000	권은량	30,000	조여경	30,000
황외숙	오음옥(3차)	1,000,000	박귀원(8차)	30,000	김범호	300,000	조우상	30,000
	우인순(8차)	1,000,000	박정희(6차)	30,000	김아석	40,000	조정숙	100,000
<b>(사)지혜로운여성 이사회비</b>	윤정로(9차)	1,000,000	배정선(9차)	30,000	김연희	30,000	진승연	30,000
계미향	이경자(5차)	1,000,000	변경선(9차)	30,000	김영희	30,000	진여아스님	90,000
김순철	이계경(4차)	1,000,000	변경원(8차)	40,000	김정희	30,000	차원준	30,000
노인자	이두영(10차)	1,000,000	서은숙(6차)	30,000	김학엽	15,000	최순진	30,000
박종덕	이명숙(7차)	1,000,000	손영신(9차)	10,000	김현숙	30,000	최혜경	300,000
안가식	이순이(3차)	1,000,000	손인애(9차)	40,000	하양자	15,000	나경운	30,000
이기향	이연숙(1차)	1,000,000	송중옥(9차)	30,000	도인희	30,000	한승우	20,000
조미향	이원표(8차)	1,000,000	송주의(9차)	30,000	박말희	15,000	허남영	30,000
최희영	이윤희(10차)	1,000,000	송혜진(8차)	30,000	박문숙	30,000	허영숙	30,000
형난옥	이인옥(3차)	1,000,000	신재영(6차)	30,000	박복순	15,000	형난옥	30,000
	이인자(2차)	1,000,000	안인자(9차)	30,000	박영재	30,000	홍숙기(진여아스님)	30,000
	이재심(8차)	1,000,000	양경윤(5차)	30,000	박지선	30,000	홍경래	15,000
<b>여성불자108인회 평생회비</b>	이주연(6차)	1,000,000	양영미(10차)	20,000	박홍우	30,000	황유진	30,000
강미중(5차)	이주현(4차)	1,000,000	오지연(4차)	30,000	박희상	30,000		
강설미(7차)	이추경	600,000	오현경(9차)	30,000	배영철	40,000	<b>불교여성광장건립 (CMS)</b>	
권지혜(7차)	이태영(9차)	1,000,000	유진희(6차)	30,000	서태경	30,000	강인영	50,000
김경량(10차)	이현아(10차)	1,000,000	윤정선(6차)	30,000	선문스님	30,000	계미향	270,000
김귀순(7차)	이현주(10차)	1,000,000	윤효영(8차)	30,000	송만순	60,000	김옥숙	324,000
김미연(10차)	임현주(7차)	1,000,000	이기향(1차)	90,000	신미옥	15,000	김형숙	90,000
김미원(9차)	장미숙(9차)	1,000,000	이수진(10차)	30,000	신은영(자우스님)	30,000	류인숙	90,000
김복순(2차)	전나미(7차)	1,000,000	이영희(8차)	20,000	안미경	30,000	이영미(6차)	4,000,000
김선옥(6차)	전영자(3차)	1,000,000	이은희(9차)	30,000	안석자	30,000	이영주(7차)	6,680,000
김숙자(3차)	정영자(8차)	1,000,000	이종용(조명숙)	30,000	안정옥	30,000	이영희(8차)	880,000
김순남(10차)	정미령(8차)	1,000,000	이지원(8차)	20,000	안정옥	150,000	이정호(2차)	3,780,000
김승목(3차)	정진원(7차)	1,000,000	이현영(9차)	50,000	안명순	30,000	이철호(원유자권선)	1,080,000
김영식(1차)	조명숙(8차)	1,000,000	이혜숙(9차)	30,000	양민영	30,000	임주연(정진희권선)	900,000
김명순(3차)	조영우(7차)	1,000,000	임상연(9차)	20,000	원유자	30,000	임지영(정진희권선)	900,000
김옥숙(10차)	조재관(10차)	1,000,000	임영희(8차)	20,000	유명숙	30,000	정주현(최혜경권선)	600,000
김외숙(2차)	조정현(8차)	1,000,000	이정호(6차)	30,000	유현영	20,000	정진희(3차)	4,000,000
김은희(4차)	조희금(2차)	1,000,000	정지원(7차)	30,000	유운옥	15,000	정원진(정진희권선)	216,000
김일명(7차)	최경분(9차)	1,000,000	정혜정(9차)	30,000	이강희	15,000	조정숙(사무국장)	540,000
김주현(8차)	최나영(10차)	1,000,000	정지원(9차)	30,000	이명순	300,000	최정경(이영미권선)	1,080,000
김자영(5차)	최운정(3차)	1,000,000	이승화	20,000	이영순	20,000	형난옥(6차)	7,080,000
김진여심(5차)	최혜숙(4차)	1,000,000	이숙자	30,000	이마선	90,000	홍경희(2차)	756,000
김현지(7차)	추미실(3차)	1,000,000	이승자	30,000	이미선	20,000	황규림(정진희권선)	840,000
남상민(1차)	하봉자(10차)	1,000,000	이상자	30,000	이마선	20,000		
리영자(1차)	홍원숙(8차)	1,000,000	이상구	120,000	이영순	30,000	<b>기타후원금 온라인 (다문화봉사단 / 교정교화센터 / 우바이예찬 / 재소자역차금 / 기타)</b>	
문명하(5차)	홍준애(3차)	1,000,000	이영재	30,000	이영구	30,000	강부자(1차)	3,000,000
박강자(6차)	조은경(10차)	1,000,000	이윤기	30,000	이명숙	30,000	강부자(1차)	3,000,000
박경자(5차)	박기옥(10차)	1,000,000	이윤희	30,000	이재명(정원일)	30,000	권은량(회원)	270,000
박근연(1차)	이천희(10차)	1,000,000	이재명(정원일)	30,000	이재영	30,000	김중숙	20,000
박영혜(2차)			이재영	30,000	이정호(회원)	1,000,000	민경란(9차)	1,080,000
박정애(8차)	<b>여성불자108인회 회비 (CMS)</b>		이정호	30,000	이순이(3차)	2,160,000	이강희(회원)	1,000,000
박찬재(9차)	강명희(6차)	60,000	이정호	3,000,000	이영미(6차)	3,000,000	이순이(3차)	2,160,000
백영임(1차)	강옥란(7차)	30,000	이정호	3,000,000	이영주(7차)	880,000	이정호	3,000,000
사기순(4차)	강희경(7차)	3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서혜경(1차)	강희경(10차)	3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성민선(3차)	계미향(8차)	3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손미원(9차)	고은자(10차)	3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손미원(9차)	김선연(9차)	4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손인희(9차)	김양희(6차)	3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송현주(4차)	김영미(6차)	3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신용현(9차)	김영숙(6차)	3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안 영(10차)	김옥주(7차)	3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이정호	3,000,000
			<b>여성불자108인 회비 (온라인)</b>					
			김배현(9차)	100,000				
			김정숙(5차)	100,000				

##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재정 동참 현황(2023.4.1~2023.6.30)

강순주(원유자권선)	1,080,000	문수현	70,000	강미중(5차)	100,000	윤정로(9차)	70,000	박원자	100,000
계미향(8차)	540,000	배수아	200,000	강부자(1차)	350,000	윤정로(9차)	70,000	박종덕	100,000
권수형(4차)	360,000	배순길	100,000	강영자(6차)	70,000	윤지현	20,000	백영임	100,000
권은량(최혜경권선)	180,000	성민선	130,000	강준기(10차)	70,000	이기향(1차)	200,000	보우법사	1,000,000
김중숙	350,000	안기순	100,000	계미향(8차)	70,000	이명순(2차)	150,000	서예식	50,000
김애주교문	5,000,000	안은덕	300,000	고경호(10차)	70,000	이목자	140,000	성영란	100,000
김옥숙(10차)	432,000	안혜경	100,000	고은자(10차)	70,000	이미숙(9차)	100,000	안기순	100,000
김연숙(7차)	1,080,000	양경윤	51,600	김경량(10차)	70,000	이수연(사무국)	70,000	양정희	100,000
김인숙(고문)	85,000,000	김경애	30,000	김도연(7차)	300,000	이순이(3차)	500,000	오금화	100,000
김형숙(정진희권선)	800,000	김도연(7차)	300,000	김민옥(8차)	70,000	이순재(8차)	70,000	원유자	200,000
류인숙(5차)	600,000	김상준(3차)	100,000	김선옥(6차)	140,000	이영미(6차)	100,000	유자현	100,000
류인숙(9차)	6,480,000	김선옥(6차)	140,000	김숙애(9차)	70,000	이영주(7차)	70,000	유혜경	100,000
박순(1차)	9,000,000	김숙애(9차)	70,000	김순철(6차)	70,000	이윤희(10차)	70,000	이기향	100,000
박원자(5차)	1,400,000	김순철(6차)	70,000	김애주(2차)	70,000	이인자(2차)	100,000	이영주	200,000
박진현(최혜경손녀, 권선)	1,000,000	김애주(2차)	70,000	김양희(6차)	70,000	이정호(2차)	140,000	이윤희	100,000
		김양희(6차)	70,000	김여주(10차)	70,000	이종심	300,000	이인자	100,000
		김연수(5차)	140,000	김연수(5차)	140,000	이태영(9차)	100,000	이정호	100,000
		김영희(9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이혜산(2차)	70,000	이현숙	100,000
		김예술	20,000	김영희(9차)	70,000	임순덕(5차)	70,000	임현주	100,000
		김옥경(7차)	50,000	김영희(9차)	70,000	전영진(8차)	150,000	정영진	100,000
		김외숙(2차)	140,000	김영희(9차)	70,000	정경연(1차)	388,500	정재선	100,000
		김인숙(1차)	500,000	김영희(9차)	70,000	정대림(6차)	350,000	형양자	100,000
		김정희(9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정유진(3차)	70,000	황수경	100,000
		김주현(8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정은희(6차)	70,000		
		김진(2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정미연(9차)	70,000		
		김혜령(9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정재선(9차)	70,000		
		(사)날마다좋은날	300,000	김영희(9차)	70,000	정혜정(9차)	50,000		
		남동현(6차)	140,000	김영희(9차)	70,000	조경숙(6차)	70,000		
		남동현(6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조귀자회원	70,000		
		남혜정(3차)	100,000	김영희(9차)	70,000	조명숙(8차)	70,000		
		노숙령(4차)	500,000	김영희(9차)	70,000	조은경(10차)	140,000		
		노인자(5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조은수(2차)	70,000		
		뉴엔티투엔	20,000	김영희(9차)	70,000	조재관(10차)	140,000		
		류인숙(5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조정숙(사무국)	50,000		
		민경란(9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조희금(2차)	70,000		
		민태영(6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채정희(3차)	50,000		
		박기옥(10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창경분(9차)	70,000		
		박원자(5차)	50,000	김영희(9차)	70,000	최미안회원	35,000		
		박재성임소정	210,000	김영희(9차)	70,000	최해숙(4차)	70,000		
		박종덕(5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최혜경(2차)	840,000		
		배순자(6차)	70,000	김영희(9차)	70,000	최희영(7차)	70,000		
		변혁주회원	140,000	김영희(9차)	70,000	하수경(1차)	70,000		
		사기순(4차)	50,000	김영희(9차)	70,000	한유리	21,000		
		산청선림사(보우법사)	140,000	김영희(9차)	70,000	한주영(10차)	50,000		
		서혜경(1차)	200,000	김영희(9차)	7				

불교여성개발원 (사)지혜로운여성

# 혜총스님과 함께하는 남인도, 스리랑카 해외 사찰순례 안내

작년 혜총스님을 모시고 다녀온 다람살라와 인도사찰순례는  
참석자 모두 환희심을 느끼기에 충분했습니다.  
올해도 혜총스님과 함께 남인도와 스리랑카를 여행하며  
신심 고취의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3.12.7.(목)~19(화) 12박 13일

◎ **장소** : 남인도, 스리랑카

◎ **인원** : 32명 이상

◎ **여행사** : 귀빈여행사(대표 양애자, 4차 108인)

◎ **주요여행지** :

- 남인도 티베트 사원 중심 순례(티베트 스님의 공부 모습과 분위기)
- 라뫼사원과 티베트 주요사원 데봉사원 게스트하우스에서 숙식
- 남인도 카르나타카주 문드가드의 티베트 빌리지 방문
- 아잔타, 엘로라 석굴 등

◎ **문의** : 02.722.7179

◎ **신청마감** : 9.30

◎ 세부일정과 여행비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